관계부처합동	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2026. 5. 13.(수) 09:00 배포 2026. 5. 13.(수) 09:00

'26.4월 취업자수는 7.4만명 증가
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 둔화

- 건설업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, 서비스업 증가세 조정, 제조업 감소폭 확대
- 청년 쉬었음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,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
- 일자리 전담반 통해 고용상황 면밀히 점검 + 민간일자리 창출 위한 과제 발굴

1 '26.4월 **15세 이상 고용률**은 **63.0%**로 전년대비 △0.2%p 하락했으며, **15~64세 고용률**은 **70.0%**로 전년대비 **+0.1%p 상승**했다. **경제활동참가율**은 **64.9%**로 전년대비 △0.2% 하락했으며, **실업률**은 **2.9%**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.

* 4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3.2 → **63.0** <경활률> 65.1 → **64.9** <실업률> 2.9→ **2.9**

○ **연령별**로는 **30대**(81.0%, +0.2%p)·**40대**(80.9%, +1.0%p)·**50대**(78.0%, +0.7%p) 고용률이 **상승**했고, **청년층**(43.7%, △1.6%p)과 **60세 이상**(47.2%, △0.3%p)은 **하락**했다.

○ 4월 기준으로 **15세 이상 경활률**은 **역대 3위**, **고용률**은 **역대 2위**이며, **15~64세 고용률**은 **역대 1위**를 기록했다.

2 **취업자수**는 전년대비 **7.4만명 증가**했다. 업종별로는 **서비스업**(31.6→20.8만명)에서 **증가**한 반면, **제조업**(△4.2→△5.5만명)·**건설업**(△1.6→△0.8만명)·**농림어업**(△5.8→△9.2만명)은 **감소**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4)19.4 (10)19.3 (11)22.5 (12)16.8 ('26.1)10.8 (2)23.4 (3)20.6 **(4)7.4**

○ **청년 고용률**은 **하락세**를 지속했으나, **쉬었음 인구**는 **3개월 연속** 전년대비 **감소**했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4)41.5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4) 1.5 (10)△0.9 (11)0.7 (12)0.0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

○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에 따른 **소비심리 위축**, 일부 업종의 **전년 큰 폭 기저효과** 등으로 **고용지표가 일시 둔화**되는 모습을 보였다. 5월 이후 **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**으로 **소비여력**이 **확대**되고, **청년뉴딜 사업 집행**이 **본격화**되는 만큼, 향후 **일시적 부진**은 **상당부분 완화**될 전망이다.

3 정부는 **일자리 전담반**(재경부 1차관, 노동부 차관 공동주재)을 통해 **일자리 상황**을 면밀히 **점검**하고, **민간부문**의 **일자리 창출**을 위한 **보완 과제**를 지속 **발굴**할 예정이다.

○ 청년고용 개선을 위해 「**청년뉴딜 추진방안**」 핵심과제를 **차질없이 집행**하는 한편, **고유가피해지원금 신속 지원**, 「**친환경 녹색소비·관광 붐업**(Boom-up) **방안**」 추진 등 통해 **소비여력**을 **뒷받침**한다.

○ 아울러, AX·GX 등 급속한 **산업구조 전환**이 **일자리**에 **과도한 충격**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'26.6월까지 「**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**」을 **수립**할 **계획이다.**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운 (044-215-853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 첨	'26.4월 고용동향 및 평가

1. '26.4월 고용동향 특징

□ **고용률 63.0%(월간 역대 2위), 경제활동참가율 64.9%(월간 역대 3위), 실업률 2.9%, 취업자수 +7.4만명 증가**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3.0%로 △0.2%p 하락(역대 2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0%로 +0.1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 : ('25.2/4)63.5 (3/4)63.5 (4/4)62.7 ('26.1/4)61.8 [(3)62.7] **(4)63.0**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2/4)70.2 (3/4)70.2 (4/4)70.0 ('26.1/4)69.3 [(3)69.7] **(4)70.0**

○ 경제활동참가율 64.9%로 △0.2%p 하락(역대 3위, '99.6월~)

* 경활률(15세+, %): ('25.2/4)65.4 (3/4)64.9 (4/4)64.6 ('26.1/4)64.1 [(3)64.6] **(4)64.9**

○ 실업률은 2.9%로 보합(3월 기준역대 최저 2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2/4)2.8 (3/4)2.2 (4/4)2.9 ('26.1/4)3.5 [(3)3.0] **(4)2.9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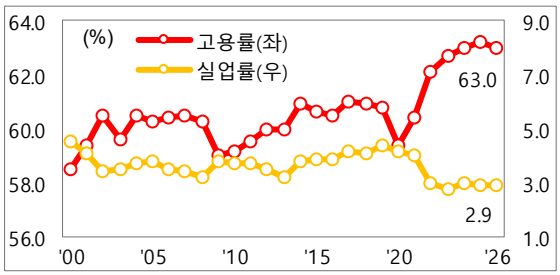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+7.4만명 증가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20.7 (3/4)21.6 (4/4)19.5 ('26.1/4)18.3 [(3)20.6] **(4)7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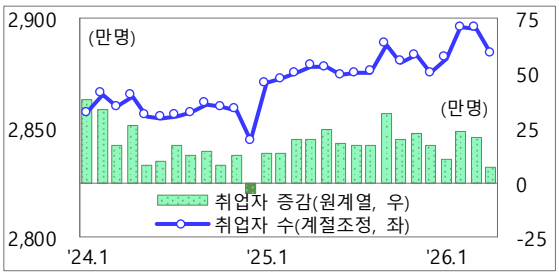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△11.7만명 감소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5.2/4) 4.2 (3/4) 2.8 (4/4)△0.2 ('26.1/4)11.7 [(3)△0.1] **(4)△11.7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4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비)



□ **(산업)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, 제조업 감소폭 확대, 건설업 감소폭 축소**

○ (서비스) 내수연관 서비스업 고용 둔화, 전문과학서비스업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(31.6 → 20.8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55.0 (3/4)51.1 (4/4)46.7 ('26.1/4)31.5 [(3)31.6] **(4)20.8**

- 보건복지(29.4→26.1만)는 돌봄수요 증가,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 지속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22.2 (3/4)29.0 (4/4)26.0 ('26.1/4)25.6 [(3)29.4] **(4)26.1**

- 중동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도소매(△1.8→△5.2만)·숙박음식(△0.2→△2.9만) 감소폭 확대, 운수창고(7.5→1.8만) 증가폭 축소

  *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0.8 (3/4)1.3 (4/4)3.4 ('26.1/4)0.9 [(3)△1.8] **(4)△5.2**
   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3.5 (3/4)△1.5 (4/4)△0.7 ('26.1/4)△1.5 [(3)△0.2] **(4)△2.9**
   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1.1 (3/4)1.4 (4/4)4.2 ('26.1/4)7.6 [(3) 7.5] **(4) 1.8**
  * CSI(장기평균=100): ('25.11)112.3 (12)109.8 ('26.1)110.8 (2)112.1 (3)107.0 (4)99.2

- 전문과학(△6.1→△11.5만)은 전년 기저('25.3월3.7→4월11.3) 등으로 감소폭 확대, 다만 계절조정전월비는 보합. 정보통신(0.3→1.8만)은 증가폭 확대

  *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11.1 (3/4)5.0 (4/4)△1.9 ('26.1/4)△8.8 [(3)△6.1] **(4)△11.5**
    ↳계절조정 취업자(전월비, 만명): ('25.11)△0.3 (12)△2.2 ('26.1)△3.2 (2)△1.6 (3)2.9 **(4)△0.2**
   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4.7 (3/4)△0.4 (4/4) 0.9 ('26.1/4)△2.0 [(3)0.3] **(4)1.8**

○ (제조) 수출 호조에도 불구,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폭 확대(△4.2→△5.5만명)

  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9.1 (3/4)△6.7 (4/4)△5.2 ('26.1/4)△2.7 [(3)△4.2] **(4)5.5**
  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 : ('24)8.1 ('25.9)△6.1 (10)13.9 (11)12.8 (12)8.6 ('26.1)13.8 (2)49.3 (3)41.9

○ (건설)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1.6→△0.8만명)

 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1.8 (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/4)△2.5 [(3)△1.6] **(4)△0.8**
  * 건설수주(전년비, %): ('24.上)5.0 (下)16.0 ('25.上)△3.0 (下)11.7 ('26.1)41.1 (2)16.6 (3)30.3

○ (농림) 영농철 진입에도, 농가인구 감소,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유입 제한되며 감소폭 확대(△5.8→△9.2만명)

 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3.7 (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/4)△8.5 [(3)△5.8] **(4)△9.2**

□ 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8%(+0.1%p), 청년층 제외 고용률 상승

○ (지위) 상용직 증가세 지속(+6.2만명)·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, 임시직은 감소폭 확대(△12.7만), 일용직 증가폭 축소(+2.2만)

  * 상용직 비중(4월, %): ('00)30.0 ('05)34.5 ('10)41.9 ('15)48.1 ('20)54.2 ('25)57.7 **('26)57.8**
    임금근로자 증감(3월→4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14.0→6.2 <임시>△5.9→△12.7 <일용>3.3→2.2

- 비임금근로자(9.3→11.6만명)는 고용有(10.5→9.9만명)·無(0.0→4.1만명) 자영업자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△1.2→△2.4만명)는 감소폭 확대

 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3→4월): <고용有>10.5→**9.9** <고용無>0.0→**4.1** <무급>△1.2→**△2.4**

○ (연령)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, 청년층·60대 이상은 하락

- 청년층 고용률(43.7%, △1.6%p), 실업률(7.1%, △0.2%p) 모두 하락

(%, %p)		'25년	3/4	4/4	'26.1/4	2월	3월	4월
고용률	청년	**45.0 (△1.1)**	45.3 (△1.1)	44.4 (△0.9)	43.5 (△1.0)	43.3 (△1.0)	43.6 (△0.9)	**43.7 (△1.6)**
	20初	**43.6 (△1.5)**	44.8 (△0.8)	42.6 (△1.3)	40.5 (△2.2)	40.3 (△2.0)	39.8 (△2.5)	**40.5 (△2.5)**
	20後	**71.8 (△0.7)**	71.8 (△0.7)	71.5 (△0.7)	70.6 (△0.6)	70.4 (△0.5)	71.4 (△0.1)	**71.5 (△1.0)**
실업률	청년	**6.1 (+0.2)**	5.1 (+0.2)	5.7 (+0.1)	7.4 (+0.6)	7.7 (+0.7)	7.6 (+0.1)	**7.1 (△0.2)**
	20初	**6.6 (+0.3)**	5.3 (+0.7)	5.4 (△0.4)	8.2 (+0.1)	8.8 (0.0)	9.4 (+0.2)	**9.0 (+1.1)**
	20後	**5.9 (+0.3)**	5.1 (+0.1)	5.8 (+0.2)	6.9 (+0.6)	7.1 (+0.8)	6.9 (+0.1)	**6.3 (△0.8)**

- 청년층 쉬었음(39.1만명, △2.4만명)은 3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4)41.5 (9)40.9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**(4)39.1**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4월 13.4%, 105.4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8%p, △8.1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4.4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4월 기준, %)

(3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1~'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內비중)	**121.4 (14.4)**	**142.4 (16.1)**	**122.8 (14.3)**	**114.0 (13.5)**	**110.6 (13.5)**	**113.5 (14.2)**	**105.4 (13.4)**
실업자(A)	수(인구內비중)	31.5 (3.7)	42.5 (4.8)	32.2 (3.7)	26.7 (3.2)	27.8 (3.4)	**28.3 (3.5)**	**26.0 (3.3)**
취준생(B)	수(인구內비중)	49.6 (5.9)	59.2 (6.7)	52.6 (6.1)	45.9 (5.4)	42.8 (5.2)	**43.7 (5.5)**	**40.3 (5.1)**
쉬었음(C)	수(인구內비중)	40.3 (4.8)	40.7 (4.6)	38.0 (4.4)	41.4 (4.9)	40.0 (4.9)	**41.5 (5.2)**	**39.1 (5.0)**

※ **청년층**은 **쉬었음 사유**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**구직의사** 등 **이질적 특성**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6 (4/4)0.2 ('26.1/4)0.5 [(3)0.6] (4)0.2 **【81.0】**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7 (4/4)1.0 ('26.1/4)1.2 [(3)1.1] (4)1.0 **【80.9】**

-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고령층 쉬었음 증가 등으로 고용률 하락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△0.2 (3/4) 0.1 (4/4) 0.3 ('26.1/4)0.8 [(3) 0.7] (4) 0.7 **【78.0】**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8 (3/4) 0.9 (4/4) 0.5 ('26.1/4)0.1 [(3) 0.1] (4)△0.3 **【47.2】**

2. 평가 및 대응

□ **'26.4월 취업자수는 내수업종 고용 둔화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조정(+7.4만명)**

○ 서비스업은 도소매·숙박음식·운수창고 등 내수업종 중심 고용 둔화 등으로 증가폭 축소

- 정보통신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, 전문과학은 전년 높은 기저('25.3월3.7→4월11.3만명) 등으로 감소폭 확대

- 보건복지업은 직접일자리 효과 등으로 증가세 지속

○ 제조업은 취업유발계수 높은 자동차·기계 등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폭 확대, 건설업은 건설경기 회복 흐름 등으로 감소폭 축소

○ 청년은 숙박음식 ·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3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4)41.5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**(4)39.1**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4)14.7 (11) 0.7 (12) 0.0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**(4)△2.4**

○ 5월은 고유가지원금 등 소비여력 확대로 내수업종 개선 기대되나, 중동전쟁 장기화 등 하방위험 병존

□ **일자리 전담반 통해 고용상황 면밀히 점검하고, 민간일자리 보완과제 지속 발굴 + 청년·내수·산업전환 등 부문별 대응에 만전**

○ 일자리 전담반(재경부 1차관, 노동부 차관 주재) 통해 일자리상황 면밀히 점검하고,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위한 보완과제 지속 발굴

○ 청년뉴딜 역량강화·일경험·회복 등 핵심과제 차질없이 집행

❶ **(도약) K-뉴딜 아카데미**(1만명), **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**(0.4만명) 등(총 1.9만명)
❷ **(경험) 공공·민간 현장 일경험 기회 마련**(2.3만명) + 청년뉴딜 참여이력 관리 강화
❸ **(회복) 상담**에서 **취업**까지 연계되는 **지원 프로그램 확대**(1.1만명)
❹ **(인프라)** 국민취업제도 **청년특화트랙 신설**(3만명), **청년고용 인센티브 확충**(1.4만명) 등

○ 고유가지원금 신속집행(1차 旣 지급, 2차 5.18일~), 「친환경 녹색 소비·관광 붐업(Boom-up) 방안」 추진 등 통해 소비여력 뒷받침

○ AX·GX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자리에 과도한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「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」 수립 추진('26.6월)